

“내 곁에서 숨만 쉬게 해주세요!!”



이 찬 휘
SBS 과학정보부장

당뇨 신장 합병증

지난 주 경희의료원에서 당뇨 합병증을 취재하던 중이었다. 지난 30년 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는 60대 여성을 만나기 위해 병실에 찾아갔다. 이 여성은 합병증이 심해져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신장도 망가져 1주일에 두 번씩 투석을 받고 있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발가락부터 썩어 올라와 다리마저 절단을 하고 말았다. 특히 그동안 합병증과 부작용으로 대수술을 3번이나 받았다. 그녀는 나를 보자 절규를 했다.

“당뇨병이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 전혀 몰랐어요!”

“몸이 이렇게 망가지기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말을 이었다.

“빨리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런데 내가 환자를 인터뷰하는 동안 옆에서 애절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30년째 아내를 보살피고 있는 남편이었다. 인터뷰하는 아

내를 애처롭게 보고 있던 남편은 아내가 ‘죽는 게 소원’이라고 말할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말 애뜻하고 아름다운 노년 부부의 모습이였다.

그래서 당뇨 환자를 보살피는 보호자의 입장도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했다. 70대 노인께서 지난 30년 동안 당뇨 환자를 보살피며 살아온 어려움을 잔잔한 투로 말해 주었다.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저희 부부는 너무 무식했어요!”

인터뷰하는 동안 노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무 증상이 없다고 10년을 내버려둔 게 문제였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운동도 거의 안 했죠. 그런데 눈부터 합병증이 오더라고요.”

“다음은 신장이 망가졌지요. 투석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요.”

“당뇨 걸리신 분들 정말 초기에 치료 잘하셔야 해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린 노인은 다시 말을 이었다.

“제 아내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눈도 망가져서

수술받았고요, 얼마 전에는 다리도 절단했어요. 게다가 침을 잘못 맞아 대수술을 받았어요.”

“그땐 정말 아내가 죽는 게 아닌가 하고 아득했습니다. 수술받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제발 내 곁에서 숨만 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인터뷰를 하던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 침 부작용이라니?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침 부작용이라고 하셨나요?”

노인은 “네, 침 부작용이었지요. 물론 돌팔이였습니니다. 당뇨가 잘 낫지 않으니까 누구나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좋다는 약 다 써 보는 거 아닌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뇨를 침으로 치료하는 용한 사람이 있다구요. 그래서 쫓아갔죠. 그런데 침 놓는 집이 음침한 게 한의원 같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야매로 침을 놓는 돌팔이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당뇨를 고친다고 침을 놓는데 온몸을 찌르는 거 있죠. 겁이 덜컥 났지요. 하지만, 잘 고친다니 반신반의하면서 아무 소리를 못했죠.”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당뇨는 조금도 낫지 않고 다음날부터 엉덩이가 산처럼 부어올랐어요. 게다가 열까지 펄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업고 응급실로 달려왔죠.”

“그랬더니 의사선생님이 당장 수술해야 한다면서, 빨리 수술 안 하면 패혈증으로 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엉덩이에 고름이 꼭 찼어요.’ 라면서 무척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침을 맞았다고 했더니, ‘소독을 안 했나?’ 하시면서 급히 수술 준비를 하셨지요. 저는 보호자 서약서를 쓰고 환자는 수술실로 향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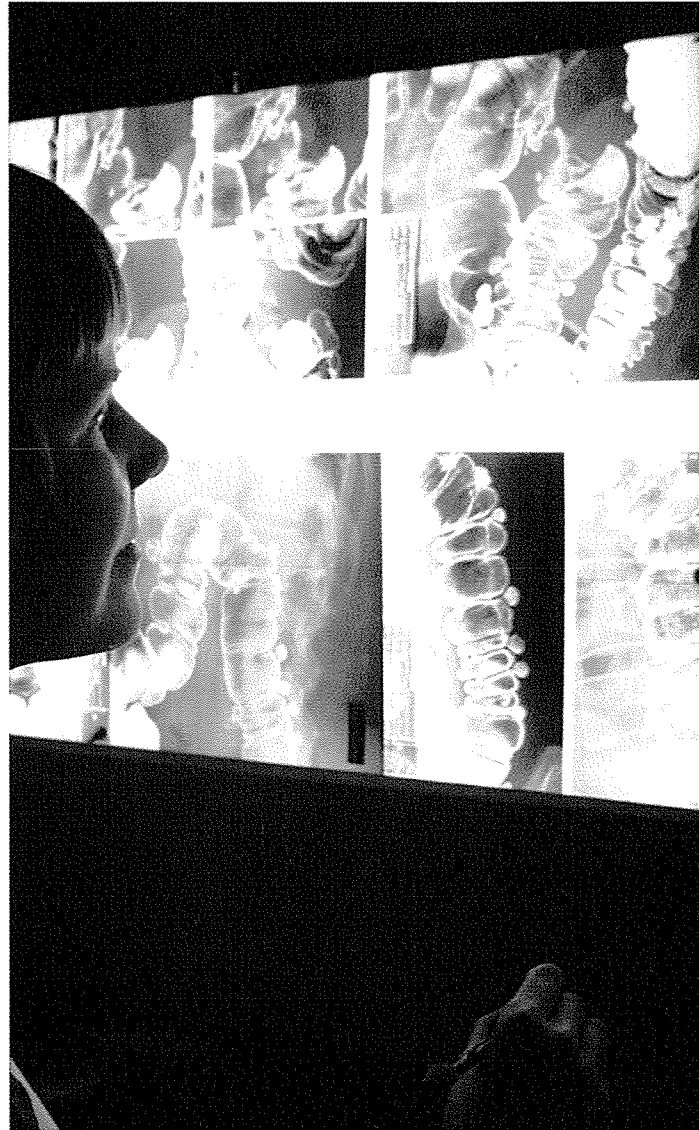
노인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5시간쯤 애타게 기다렸지요. 그랬더니 수술이 끝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을 했던지 입안이 다 갈라졌지요.”

“그런데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조금만 늦어도 살기 어려웠다.’ 라면서 ‘엉덩이 살 속에서 고름

을 한 주전자쯤 뽑아냈다.’ 라고 하셨지요.”

“게다가 수술은 잘됐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여서 중환자실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말 ‘하느님 고맙습니다.’ 라고 속으로 외쳤지요.” 인터뷰를 끝내면서 노인 부부는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당뇨가 잘 낫지 않는 병이어서 민간요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믿을 게 못 됩니다. 반드시 의사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빨리 발견해서 일찍부터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